

報道資料



보험개발원

제공일자	2007년 10월 16일	
담당자	이태열 연구조정실장	368-4177
홍보담당	이정환 선임	368-4093
※ 총 3매		

※ 2007. 10. 17(수) 조간부터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개발원(원장 정채웅)은 최근 세계보험시장의 통합,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 활발화 등을 계기로 신속한 해외정보의 수집과 전달을 위해 부설 보험연구원 내에 해외보험정보센터를 신설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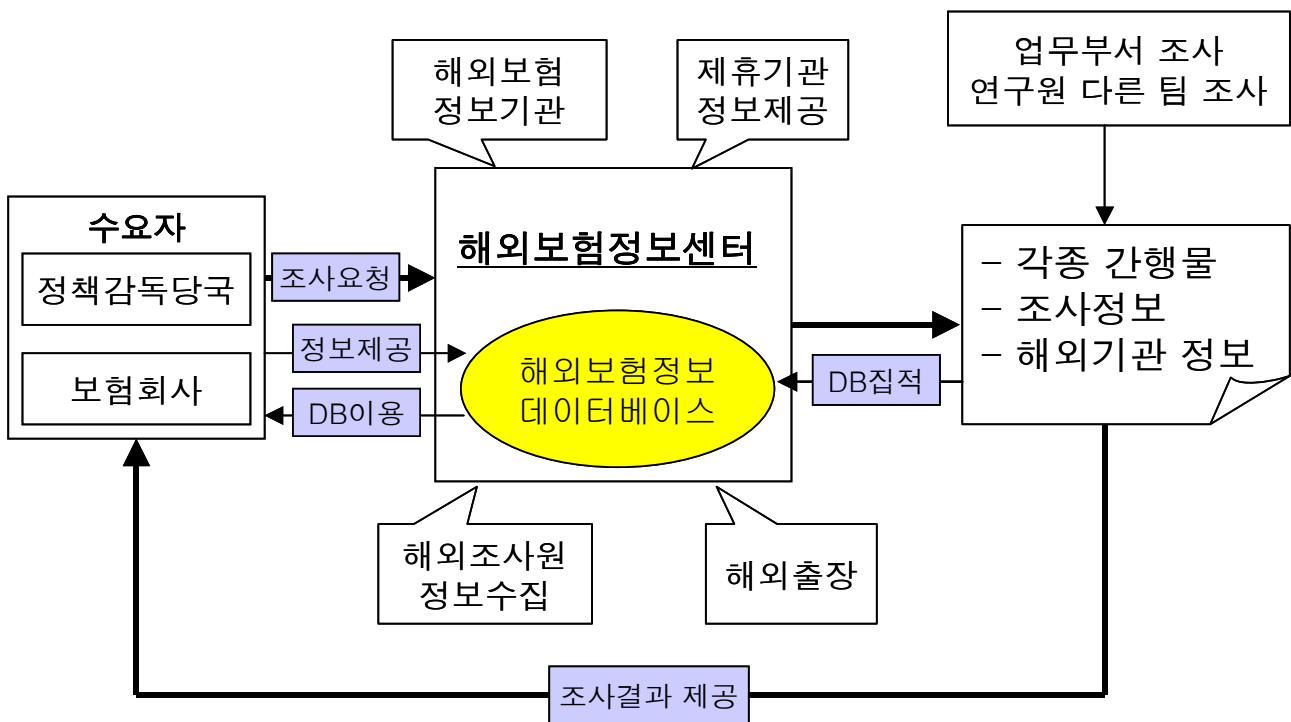
해외보험정보센터 신설로 보험산업 글로벌화 적극 지원

최근 세계보험시장의 통합, 국내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발화 등을 계기로 해외보험정보의 신속한 수집, 체계적 관리 및 제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가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이 새로 출범할 부설 보험연구원 내에 해외보험정보센터를 신설하기로 하여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외보험정보센터는 센터장 1인과 5인의 연구진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대외적으로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창구가 됨으로써 개방형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지역별 해외보험정보시장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해외 선진경영 및 보험기법 선진사례(best practice)도 수집하여 DB화 함으로써 관리 및 이용의 편리성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국가에 대한 보험정보 중심의 국가별 보험시장보고서(country profile), 해외보험정보 뉴스레터 등을 발간함은 물론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OECD, IAIS 등 국제회의 참석 및 대외창구 역할을 함은 물론 보험업계 해외보험담당 전문가로 해외보험정보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보험정보센터 운영 체계



특히 이러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일방적인 정보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피드백이 가능한 개방형을 채택함으로써 보험회사 등 실수요자의 니즈가 적극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보험정보포럼을 통해 정보조사 니즈를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접수함은 물론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 접수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회사 등 수요자가 자체 수집한 정보도 해외보험정보센터가 운영하는 해외보험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는 것을 유도하는 한편, 수요자가 필요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은 이를 위하여 기존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A.M.Best, Datamonitor, LIMRA 이외에도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Conning 등 해외조사전문기관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업무제휴기관도 기존의 미국 Georgia State Univ. 보험연구소, 독일 Köln대 보험연구소 등에서 더욱 확대하기로 했으며, 해외 주요 거점지역인 뉴욕, 런던, 동경, 북경 등에 현지 보험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외조사원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자료 자료구입 확대와 해외출장조사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예산도 확충할 계획이다.